

類에 걸쳐 貴重한 歷史的 考古學的 資料가 많이 包含되어 있는 것인 바 陶磁의 銘文도 또한 이에 (石文의 一種으로) 歸屬시켜 볼직한 것이다. 在銘陶磁器는 高麗時代의 것도 적지 아니 남아 있으나 대개는 그 물건의 所屬處의 이름이 박혀 있거나 或은 短句의 文面이 들어 있는 程度인 것이다. 그런데 孝·顯時代人인 (仁祖十四年—肅宗二十五年(西紀一六三六—一六九九)) 葵亭 申厚載先生의 葵亭集에 依하면 高麗의 酒器로서 長七言律(八句)에 「松峴閣」三字를 合하여 全五十九字의 銘文을 지닌 것이 있었다 한다.

同集 卷六 「次古酒器韻」序에

尙州 永順里之舊居 掘得古酒盞 及酒臺 有七言律 (1) 以八分書臺面者 卽唐末 翁綬詩也 詩曰 陶器迎春復送秋 無非綠蟻滿杯浮 百年莫惜千面醉 一盞能銷萬古愁 幾爲芳菲眠細草 曾因雨雪上高樓 平生名利關心者 不識狂歌到白頭 其後 (2) 有松峴閣三字 意者 姓閔而居松峴者 嗜酒能詩 自放於山水之間 寓意於斯作也 (3) 但酒器製造既古怪 決非近代之物 若論其世 在勝國無疑也 餘亦酒人乎(好?) 游摩訶遺迹 尙友於千載之上 遂次其韻(參考) 葵亭의 『次古酒器韻』酒人仙去幾春秋 鯨 飲當時大白浮 八句題誰留古跡 一樽對自遣窮愁 提携每憶眠芳草 酌甌還思上雪樓 長物家貧猶有此 肯將名利到心頭

라 하였다. 이는 葵亭이 尙州 永順里의 舊第에서 옛 술盞과 酒臺(盞臺?)를 掘得하였는데 그 臺面에는 八分(書體)으로 唐末의 詩人 翁綬의 七言律詩가 (여기에서는 詩를 略한) 쓰여 있어 있고 그 뒤에는 松峴閣三字가 보이는 바 이는 閔姓人으로 松峴에 사는 者가 술을 즐기고 詩에 能하여 스스로 山水 사이에 논이던 터로 뜻을 翁綬의 詩에 붙인 것이라 解釋하고 그 酒器는 製造한 品이 古하고 奇怪하여 決코 近代의 物건이 아니며 時代를 論한다면 勝國 卽 前朝인 高麗임이 疑心 없었다고 斷定하고 自己도 酒人이며 놀기를 좋아하며 遺物을 어루만지면서 手載의 前사람과 벗하는 意味로 그 韻을 따라 「酒人仙去 云云」의 詩를 지어 和答한다는 것이다. 特別히 이 序에서 留意할 點은 (1) 「八分體」로 臺面에 썼(書)다」는 것인 바 元來 本序의 文面에는 掘得한 酒器에 對하여 그것이 金屬器인지 陶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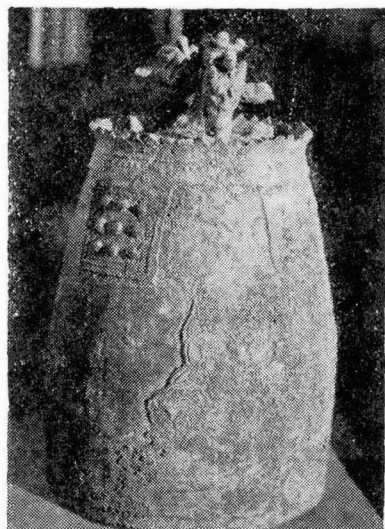
지가 指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以八分書臺面」의 書로써 推察하여 보면 이것은 分明히 金屬에 鏤刻한 것이 아니오 陶磁器面에 毛筆로 글 고 燒造한 것임을 意味하는 것이며 (2) 「松峴閣」이라 한 것은 葵亭도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松峴(地名)註에 사는 閔氏의 意味로 解釋하여야 할 것 인 바 여기에 있어서도 「松峴閣」이 그 詩의 筆寫者의 落款인지 或은 器物主의 標識인지 未詳한다. 葵亭은 翁綬의 詩에 「松峴閣」을 關聯시키려 하였으나 그것이 酒器인 만큼 酒에 關한 詩를 써 놓는데 不過하다 할 것으로서 반드시 兩者(詩와 閔)를 關聯시키 必要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陶磁器에 흔히 그것의 所屬處가 記錄되어 있는 例로 보아 「松峴閣」은 松峴閣氏의 所有임을 標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序에 보이는 「其後 有松峴閣三字」의 「其後」도 그 酒臺의 裡面을 가르킨 것인듯 함) 그리고 松峴閣氏가 酒器에 까지 標識된 것으로 보면 該氏가 當代의 名家이었던 것으로 想像되며 八分體의 律詩와 아울러 形態가 古怪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 酒器는 名工의 솜씨로 만들어졌던 것인듯 하다. (3) 年代에 있어 葵亭은 特別히 製造의 古怪함을 들며 決코 近代의 物건이 아니오 高麗의 것임이 의심 없다고 까지 斷定한 것으로나 또는 近三百年前에 出土되었 다는 點等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高麗器임에 틀림 없던 것임을 다시 금 推定할 수가 있는 것이다.

〔註〕松峴은 尙州의 古地名으로 慶尙道地理志 尙州道 尙州牧官條 및 東國輿地勝覽 卷二八 尙州 山川條에도 보인다

高麗青銅梵鐘의 新例 四

黃 壽 永

今年에 出土된 銅鐘으로서 筆者가 最近에 調査한 兩例가 있어 紹介하



여 둔다. 모두小品으로서銘文은 없으나形態가完存하며各部樣式을具備하고 있다.

〔其一〕(寫眞)細長한鐘體위에甬筒과雙龍이配置되어全高一十cm口徑十一·五cm이다。上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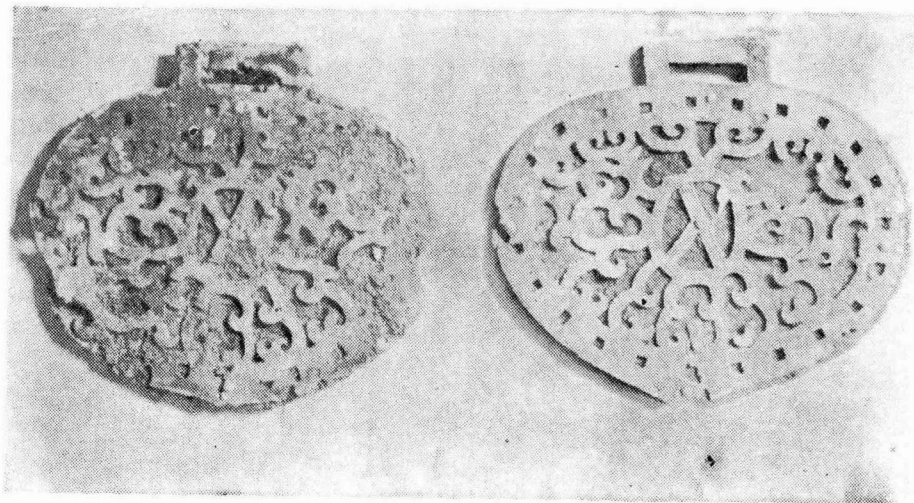
에는突起된蓮花帶가 둘러있고上下兩帶는點線과雷紋으로 장식하였다。乳廓은넷(四)으로各九孔의通式을 보이고 있으며中間地鐘腹에는圓形撞座와坐像이各二씩交代로配置되어 있다。鐘形이端正하고彫飾이優雅하여新羅梵鐘의遺貌를간직하고 있다。全州附近出土라고傳하는바鐵鑄가一部에附着되어 있다。鐘身의두께는매우얇으며下緣에 이르러厚一浬인바鑄造는優秀하여鐘頂上에小孔을보일뿐完全하다。年代는高麗中期로推定된다。

〔其二〕鐘高에比하여鐘體가넓다。(高二五·五cm에口徑十八cm厚一cm)上緣에單瓣突起가 둘러있고上下帶는唐草文이다。乳廓은넷으로各九孔인데過大하여鐘腹까지나려오고 있으며中間地에는撞座와坐像이各二交代로配置되었는데 이들은 모두板狀으로彫刻되어 있다。龍鈕는없고甬筒은折斷되어突起(高六·五cm)만이남았는데一隅에偏在함이注目된다。두꺼운靑綠鑄가全면에시워졌으며上體에一孔이뚫려있다。年代는高麗下代로推定된다。以上二口는 모두서울市李洪根氏의所藏이다。

杏葉의 一例

秦

弘 燮



梨花女大 博物館에杏葉이一雙所藏되어있다。鐵地金銅裝으로心葉形鐵板上部에달아매기위한長方形方孔이있고鐵板은두께三mm上部突起는三·八×一·三cm 구멍二·一×〇·四cm突起부터의길이一〇·三cm幅一二cm이다。이表面에同形の文樣이透刻된金銅板을五個處에못으로鐵板과固定시켰다。原來는鍍金하였으리라고생각되는데 지금은거의全部벗겨지고一部에잔흔痕跡만이남아있다。透刻文樣은心葉形周緣에幅六·五mm의帶를돌리고